

[ID-09] 천문학용어표준화 학회최종안

김광태¹

¹충남대학교 천문우주과학과

지난 2년 동안 이루어진 학술 용어의 표준화 결과물로 도출된 우리 학회의 최종안의 내용을 소개한다. 표준화는 영문 용어에 대한 적합한 한글 용어를 택하는 작업인데 용어가 다수일 때는 최선의 대안 두 개를 선택하여 이를 선호도에 따라 나열하였다. 21세기 과학정보시대에 대비해서 지금까지 소수의 전문가들만이 것이었던 전문지식이 대중과 함께 공유되어야 하는 시대적 요청에 순응하여 이루어지는 작업인 만큼 미래 천문학발전의 영향력 있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있었던 표준화 작업에서 발견된 문제들과 개선점들을 발표를 통해 소개한다. 학회 표준안이 확정된 후에라도 회원 가운데 용어상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용어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채택되면 표준화에 즉시 반영할 예정이다.

[ID-10] 정두원의 서양 문물 도입에 대한 이해

안상현

한국천문연구원 광학천문연구부

1631년 조선 인조 때 북경에 사신으로 갔던 정두원은 산둥반도의 명저우에서 포르투갈 출신 선교사 및 통역사인 호드리게스를 만나서, 호드리게스가 조선 국왕에게 바치는 서양의 문물을 받아 왔다. 이것은 한국사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서양 문물을 대량으로 가져온 사건이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정두원은 화포, 천리경, 자명종 등을 전하였다."라고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의 하나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는 되어 있지 않다. 천문학사에 있어서도 정두원이 차지하는 역사적 위치는 소홀히 다룰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망원경을 들여왔기 때문이다. 그가 가져온 것은 이뿐만이 아니라 개선된 화약 제조법, 천문서적, 서양지리서 등이 더 있었다. 타이완의 과학사학자인 후양이농(黃一農)의 주장을 예로 들 수 있듯이, 당시 조선인들이 정두원이 가져온 서양 문물을 본보기로 삼아 자체 기술로 개발했다면 1637년 병자호란에서 여진족이 세운 후금에게 일방적으로 패배를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당시 조선인들은 보수적 성향이 강하여 새로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두원이 귀국시 인조에게 제출한 귀국보고서 원문과 사절단의 행로를 따라 자세한 건문을 담은 조사 보고서를 새로 발굴하여 소개한다. 여기서 새로 소개되는 자료들에 따르면, 그가 북경에 갈 때의 사명은 조선 사절단의 입국 항로를 산둥반도로 환원시킬 것, 화약 수입을 허락받거나 새로운 화약 제조법을 입수해 올 것, 후금의 북경 침입에 관련한 국제 정세를 정탐해 올 것 등이었다. 정두원은 이러한 사명을 비교적 잘 수행했으나, 우리는 그가 가져온 서양 문물들의 물목을 오해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게 그는 서양 대포인 홍이포를 가져오지 못했고, 가져온 화약 제조술은 그리 효율성이 높지 못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빈약한 정보로는 홍이포로 무장한 후금군을 상대할 기술 개발을 할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당시 사람들이 지나치게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